

#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분석

## Retirement Preparing Behavior Analysis of Pastors with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김영춘\*, 김진연\*\*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부대학교 대학원\*\*

Young-Chun Kim(minsun0917@nambu.ac.kr)\*, Jin-Youn Kim(jinyeonn@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행동과 관련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한 은퇴준비 태도요인,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요인,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요인, 은퇴준비 의도요인, 은퇴준비 행동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목회자 214명이었고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과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와 은퇴준비 의도는 은퇴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은퇴준비 의도는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와 은퇴준비 행동의 영향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목회자들의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계획된 행동이론 | 목회자 | 은퇴준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n all factors from the research design by pastors. Research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214 pastors and they were analyzed. In order to derived the results of a study, we used the statistical processing technique SPSS, to perform verification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AMOS analysis was performed for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intention,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of retirement preparing. Second,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and behavior,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behavior of retirement preparing. Third, intention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between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behavior of retirement preparing.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comprehensiv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of retirement preparing by pastor.

■ keyword : | Theory of Planned Behavior | Pastor | Retirement Preparing |

## I. 서론

은퇴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위기적 문제로 다루어진다. 은퇴는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사회적 낙인 등의 사회적 위기로 여겨진다. 더욱 은퇴를 수동적이고, 단조로우며,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은퇴하기를 두려워한다[5][25]. 이에 선행연구들은 은퇴 이후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즉 은퇴 후 필요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와 적정 수준의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1][12]. 또한 은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행동적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4][5][19].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적절한 은퇴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의 성직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특수계층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향이 높고,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다른 종교 성직자들에 비해 노후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다[16][8]. 은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각 교단의 선교를 1차적인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인간으로서 개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 및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각 교단차원의 자체적인 목회자에 대한 노후 및 은퇴준비를 개인차원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은퇴준비 행동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은퇴는 목회자의 노후와 관련하여 심각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회의 역할에 비해 목회자의 수는 지나치게 많아서,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할 만한 교인 수 및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3]. 결국 목회자의 노후생활 대책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과 차이를 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지혜를 필요할 것이다.

결국 목회자는 은퇴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도 노

년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 개인으로 보는 시점에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회복지적 해결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목회자의 은퇴 후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은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소득, 필요자금, 은퇴자금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목회자의 은퇴준비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의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이론으로 입증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교, 기독교, 카톨릭,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집단 중에서 기독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은퇴준비 행동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목회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TPB :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Fishbein & Ajzen(1975)이 제안한 합리적 행위이론(TRA :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확장 이론이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인간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는 전제하에 개인의 행동이 의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사회의 주관적 규범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장애나 자원의 부족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결단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모형의 예측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비판을 받았다[9]. 이에 Ajzen(1991)은 자신의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하여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간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는 먼저 그 행동에 대한 의도를 가진 후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되므로 행동에 대한 의도가 파악되면, 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3가지 요인에 의해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은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변수가 포함됨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TPB)이 합리적 행위이론보다 행동 예측에 더 적합한 모델임이 검증되었다[1][17][18]. Chang(1988)은 비윤리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계획된 행동이론(TPB)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도, 규범, 행동통제, 의도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TPB가 보다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15].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한 행동예측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이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2. 목회자 은퇴

목회자의 은퇴는 교회법으로 정한 일정 직분에 대해서 은퇴를 적용할 수 있다. 목회자의 은퇴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교회가 정하는 법에 의하여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헌법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통합측), 성결교, 감리교의 은퇴 연한은 일반적으로 7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될 수 있고, 아니면 단지 ‘은퇴 목사’로 은퇴할 수 있다[22]. 또한 목회자 은퇴는 개신교 법에 근거하지만, 현실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목회자 은퇴의 시점은 일반 직업보다 가변적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목회자 은퇴는 관심 가져야 할 연구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실질적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목회자의 은퇴 이후 실증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선행연구

### 3.1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한 은퇴 연구

최근 들어 은퇴준비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은퇴준비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혜지·이영분(2005)은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였는데,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인 재정적 지식이 은퇴준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정운영·백은영(2009)은 20대~50대 중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월 소득, 은퇴인식, 은퇴태도는 객관적인 준비행동인 은퇴준비를 위한 월 적립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백은영(2011)은 은퇴준비와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지도나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 그리고 교육비 부담과 같은 주관적 전망이나 기대 요인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재정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한계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계획된 행동이론은 은퇴준비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으로 최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은퇴준비 태도에 집중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준비 태도, 은퇴준비 자원이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미치는 통합적 연구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은퇴준비 행동을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 이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3.2 목회자 은퇴와 관련한 연구

목회자를 대상으로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퇴목회자들의 노후생활에 관한 생활실태보고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건강문제를 보고하고 있다[7]. 이 점은 은퇴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은퇴 이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들로 경제적 문제, 거주 문제, 건강 문제, 역할상실에 대한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조사되었다[2][8][13][14]. 이 중에서 경제문제와 건강문제는 인간의 기본 생존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은퇴 목회자 뿐만 아니라 현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 목회자 개인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성이 교단차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 은퇴 준비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신교의 목회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은 교단이 아닌 개인 책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개인이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은퇴 이전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연구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목회자 은퇴연구가 향후 기독교 목회자 은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은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은퇴관련 선행연구

구분	주요 변수	선행연구자
계획된 행동이론과 은퇴	재정적 지식	최혜자이영분(2005)
	월 소득, 은퇴인식 은퇴태도	정운영백은영(2009)
	생활여건 인지, 장래소득기대 생활수준 만족, 교육비 부담	백은영(2011)
목회자 은퇴	경제, 거주, 건강, 역할상실 자녀, 신앙	오세영(1999), 김민우(2005) 서정창(2005), 이규현(2007)
	생활 실태 경제문제, 건강문제	변은미(2011)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목회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로서 서울 및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의도적 표집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3년 2월 8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300여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는 257부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무응답이나 본 연구에 활용하는데 오류가 있는 43부를 제외한 2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설문지 구성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태도와 행동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태도변용이 행동변화를 이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낮거나 부재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통해 매개되며, 최종적으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15][23].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한 기대를 뜻하여 특정 행동에 수반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적인 규범적 신념을 나타낸다[20].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규범도 직접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도를 통해 영향을 준다[15][23]. 지각된 행동 통제는 특정행동에 필요한 기술, 자원,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15]. 각 요인별 설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요인	문항수	척도	출처
은퇴준비 태도	3	Likert 5점	Ajzen, 1991 최영정, 2009 이용규, 송용찬, 2012
주관적 규범	3		
지각된 행동통제	3		
은퇴준비 행동의도	3		
은퇴준비 행동	3		
인구통계학적 특성	7	명목	
계	22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와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은퇴준비의 행동의도와 행동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삼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AMOS 7.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목회자의 은퇴준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 계획된 행동이론에 입각한 은퇴준비 행동의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가 향후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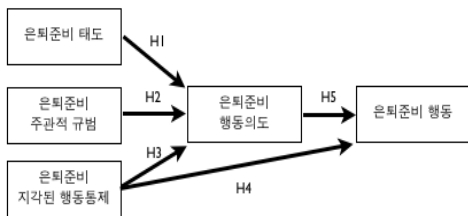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 1. 은퇴준비 태도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은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3.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4.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5. 은퇴준비 행동의도는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목회경력, 교단등급 가입여부,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은 40대 이하 73명(34.1%), 50대 117명(54.7%), 60대 이상 24명(11.2%)으로 50대 이상 목회자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41명(19.2%), 건강한 편이다 110명(51.4%), 보통이다 50명(23.4%), 건강하지 못하다 9명(4.2%), 매우 심각하다 4명(1.9%)으로 대부분 건강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목회경력은 5년 미만 16명(7.5%), 5년~10년 41명(19.2%), 10년~15년 61명(28.5%), 15년~20년 45명(21.0%), 21년 이상 51명(23.8%)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내용	빈도(명)	백분율(%)
연령	40대 이하	73	34.1
	50대	117	54.7
	60대 이상	24	11.2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1	19.2
	건강한 편이다	110	51.4
	보통이다	50	23.4
	건강하지 못하다	9	4.2
목회경력	매우 심각하다	4	1.9
	5년 미만	16	7.5
	5년 ~ 10년	41	19.2
	10년 ~ 15년	61	28.5
교단등급 가입여부	15년 ~ 20년	45	21.0
	21년 이상	51	23.8
	예	66	30.8
	아니오	148	69.2
국민연금 가입여부	예	75	35.0
	아니오	139	65.0
	합계	214	100

교단은급 가입여부에서는 예 66명(30.8%), 아니오는 148명(69.2%)이었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도 예 75명(35.0%), 아니오 139명(65.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목회자들의 은퇴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목회자 은퇴 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은퇴준비태도는 은퇴자의 주관적 규범, 은퇴준비 행동의도, 은퇴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행동통제, 은퇴준비 행동의도, 은퇴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와 은퇴준비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은퇴준비 행동 의도는 은퇴준비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 다만 은퇴준비태도와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1. 은퇴준비 태도	1				
2. 주관적규범	.788***	1			
3. 지각된행동통제	.134	.230**	1		
4. 은퇴준비 행동의도	.356***	.481***	.591***	1	
5. 은퇴준비 행동	.136*	.266***	.656***	.724***	1

\* p<.05, \*\* p<.01, \*\*\* p<.001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은퇴준비 태도에 대한 3개의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972~.975사이의 값을 가지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 α 값은 .983으로 높았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3개의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897~.952 사이의 값을 가지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 α 값은 .949로 높았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3개의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859~.952 사이의 값을 가지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 α 값은 .927로 높았다.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대한 3개의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경로계수 .849~.950 사이의 값을 가지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Cronbach α 값은 .932로 높았다.

은퇴준비 행동에 대한 3개의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경로계수 .916~.938 사이의 값을 가지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 α 값은 .947로 높았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	측정 변수	β	B	S.E.	C.R.	SMC	신뢰 계수
태도	태도1	1.006	.974	.024	42.418***	.948	.983
	태도2	1.010	.975	.023	43.024***	.951	
	태도3	1.000*	.972			.945	
주관적 규범	규범1	.885	.897	.038	23.556***	.804	.949
	규범2	.980	.936	.036	27.407***	.876	
	규범3	1.000	.952			.906	
지각된 행동 통제	통제1	.863	.859	.047	18.462***	.738	.927
	통제2	1.044	.952	.045	22.969***	.906	
	통제3	1.000	.906			.822	
은퇴준비 행동 의도	의도1	1.000	.849			.721	.932
	의도2	1.067	.950	.054	19.630***	.903	
	의도3	1.054	.920	.057	18.580***	.846	
은퇴준비 행동	행동1	1.000	.938			.879	.947
	행동2	1.020	.917	.043	23.940***	.841	
	행동3	1.006	.916	.042	23.819***	.838	

x<sup>2</sup>=134.390, df=80, p=.000, CMIN/DF=1.680, GFI=.925, AGFI=.888, CFI=.986, RMR=.057, RMSEA=.056, NFI=.967, IFI=.986 TLI=.982

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R, RMSEA, GFI, CFI, NFI, IFI, TLI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표 6]과 같다.  $\chi^2=140.655$ ,  $DF=81$ ,  $p=.000$ ,  $CMIN/DF=1.736$ ,  $RMR=.058$ ,  $GFI=.928$ ,  $AGFI=.893$ ,  $NFI=.969$ ,  $IFI=.986$ ,  $TLI=.982$ ,  $CFI=.986$ ,  $RMSEA=.056$ 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GFI$ ,  $NFI$ ,  $IFI$ ,  $TLI$ ,  $CFI$  값은 .9 이상,  $RMR$ 과  $RMSEA$  값은 .05~.08 수준이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AGFI$  값을 제외하고 적합 기준에 부합하였다.  $AGFI$  값은 0.9 이하의 수치를 보였는데,  $AGFI$ 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 를 권고하고 있는 점에서  $CFI$  값이 0.9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모델은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10].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수용가능한 수준의 적합 모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6. 모형의 적합도

구분	측정값	적합여부	구분	측정값	적합여부
$\chi^2$	140.655	-	$GFI$	.928	적합
$DF$	81	-	$AGFI$	.893	부적합
$p$	.000	유의	$CFI$	.986	적합
$CMIN/DF$	1.736	적합	$NFI$	.969	적합
$RMR$	.058	적합	$IFI$	.986	적합
$RMSEA$	.056	적합	$TLI$	.982	적합

#### 4. 구조모형의 분석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태도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은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4.219$ ,  $p<.001$ ),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이 증가하게 되면 은퇴준비 행동 의도는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8.943$ ,  $p<.001$ ),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은퇴준비 행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증가하게 되면 은퇴준비 행동 의도는 52%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와 은퇴준비 행동의도 모두 은퇴준비 행동에 유의미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t=5.529$ ,  $p<.001$ ), 지각된 행동통제가 증가하면 은퇴준비 행동은 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준비 행동 의도는 은퇴준비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t=8.327$ ,  $p<.001$ ), 은퇴준비 행동 의도가 증가하면 은퇴준비 행동은 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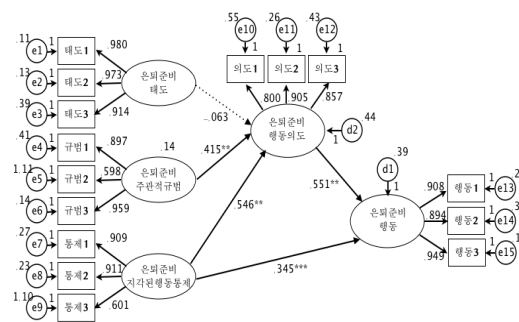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구조적 경로계수

표 7.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구분	Estimate		S.E.	C.R.
	비표준화	표준화		
태도→행동의도	-.047	-.063	.069	-.675
규범→행동의도	.349	.415	.083	4.219***
통제→행동의도	.520	.546	.058	8.943***
통제→행동	.343	.345	.062	5.529***
행동의도→행동	.576	.551	.069	8.327***

\*\*\*  $p<.001$

중효과 분석 및 연구 모형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은퇴준비 행동의도는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가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크기는 .301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 < .0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 간의 직·간접 효과

구 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준비 태도 → 은퇴준비 행동의도	-.063		-.063
은퇴준비 태도 → 은퇴준비 행동		-.035	-.035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 → 은퇴준비 행동의도	.415**		.415**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 → 은퇴준비 행동의도	.546**		.546**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 → 은퇴준비 행동	.345**	.301**	.646**
은퇴준비 행동의도 → 은퇴준비 행동	.551**		.551**

\*\*  $p < .010$

## V.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합한 결과로서[1][17][18] 목회자의 은퇴준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은퇴 준비를 위한 가용자원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은퇴준비 행동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목회자가 은퇴준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은퇴 이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은퇴준비 태도가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목회자의 특성상 신앙심과 은퇴준비의 모습이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 은퇴준비 행동의도는 은퇴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를 위한 가용 자원은 직접적으로 은퇴준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목회자들도 은퇴 이전에 가용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제

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 미가입 65.0%, 교단은급 미가입 69.2%로 조사되어 개인 차원의 은퇴준비 자원 마련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2][8][13][14]. 따라서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은 매우 미흡하고, 이를 방지하게 되면 개인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입 마련은 필수적이며, 추후 구체적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개신교 교단에서는 교내 목회자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은 교단이 아닌 개인 책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개인이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목회자는 직업 특성상 특수계층에 해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사회보장, 경제적 문제 등 자신의 삶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목회자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에 대한 다양한 은퇴준비와 은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목회자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의 은퇴준비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은퇴준비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목회자들이 은퇴준비 행동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의도를 지속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한 재무관리, 건강관리, 소득보장 체계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의 은퇴준비 주관적 규범과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 때 은퇴준비 행동의도가 높아져 은퇴준비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들의 은퇴준비 행동은 보수신앙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의도나 계획이 신앙심에 대립된다고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목회자의 은퇴 이후 현실적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목회자의 은퇴준비는 신앙을 포함한 관념의 변화체계가 요구된다.



이는 개인 목회자들의 변화를 기다리기 이전에 기독교 교단의 차원에서 목회자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체계적인 은퇴 교육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목회자의 은퇴준비 지각된 행동통제, 은퇴준비 행동의도는 은퇴준비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목회자 자신의 은퇴 준비를 위해 개인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연금보험과 목회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 기관과 협약관계를 맺어 은퇴준비 행동의도를 높여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과 민간보험 기관과 협약을 통한 목회자들의 은퇴연금보험을 보장하여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 건강문제와 관련한 민간기관의 연계성도 교단 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도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은퇴 이후 보험제도가 목회자들에게 의무가입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은퇴준비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단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보장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계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비확률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은퇴준비 행동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적용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신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일반인과 달리 목회자는 종교상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목회자의 은퇴준비와 관련해서는 계획된 행동이론만이 설명이 가능하지는 않다. 따라서 인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접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은교,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을 위한 탐색적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23-236, 2012.  
 [2] 김민우, 목회자 노후소득보장 만족도 연구: 기독교대한감리회 은급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5.  
 [3] 김의수, “취약한 목회자의 재무구조, 어떻게 극복할까?”, 목회와 신학, 237호, pp.42-59, 2009.  
 [4]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57-297, 2008.  
 [5] 배문조, 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7호, pp.89-102, 2004.  
 [6] 백은영,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와 준비유형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357-383, 2011.  
 [7] 변은미, 은퇴목회자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신앙, 여가, 경제, 주거 생활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1.  
 [8] 서정창, 침례교목회자의 노후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9] 송갑호,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비윤리적 컨설팅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10] 송지준,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2.  
 [11] 안종범, 전승훈,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제15호, pp.5-33, 2005.  
 [12] 여윤경, “목표소득 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3호, pp.83-97, 2002.  
 [13] 오세영, 감리교 원로목사의 욕구에 따른 노후생활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1999.  
 [14] 이규현, 목회자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7.  
 [15] 이용규, 송용찬,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의 토대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pp.1-18, 2012.

- [16] 이종성, “목회자의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월간목회, p.306, 2003(2).
- [17] 이준엽, 안태기, “축제방문자의 먹거리 구매행동 예측에 대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제8권, 제2호, pp.116-124, 2008.
- [18] 이한울, 박현순,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행동에 대한 영향 변인 탐구”, 한국광고홍보학회, 제12권, 제34호, 2010.
- [19] 정운영, 백은영,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제25권, 제2호, pp.115-139, 2009.
- [20] 최영정,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객의 책임 관광 행동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1] 최혜지, 이영분,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8권, 제57호, pp.415-435, 2005.
- [22] www.hdpck.org
- [23]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s*, Vol.50, pp.179-211, 1991.
- [24] M. Chang, “Predicting Unethical Behavior: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7, pp.1825-1834, 1988.
- [25] B. R. Fretz and M. W. Merikangas, Preretirement programing: Needs and responses. In L.H.Daniel(Ed.), *Adult career development. Concepts, issues, and practices*, Alexandria,VA: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 1992.
- [26]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5.

저 자 소 개

김 영 춘(Young-Chun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4년 2월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2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지역사회복지, 사례관리

김 진 연(Jin-Youn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1년 2월 :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7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과정 중)

<관심분야> : 노인복지, 기독교복지